



## 한글본 한국십진분류법 제5판 발간 작업 시작

우리협회 분류위원회는 지난 7월 30일(월) 열린 회의에서 1996년 발간된 한국십진분류법 제4판이 한자 중심이며 개정 필요성도 커졌기 때문에 『한글본 한국십진분류법 제5판』 발간 작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이 개정작업은 2008년 6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인쇄과정을 거쳐 2008년 11월에는 한글본 한국십진분류법을 선보일 예정이다.

분류업무를 수행할 때 느꼈던 애로사항이나 각종 사례, 개정 방향등에 대한 의견이 있을시 한국도서관협회 사무국으로 연락하면 된다.

▶ 7 page

## 2007 독서의 달 포스터 · 표어 선정

문화관광부와 한국도서관협회는 9월 '독서의 달'을 맞이하여 국민의 독서의욕을 고취시키고 독서생활화를 위한 국민의 참여 분위기를 제고하고자 독서의 달 포스터를 제작·배포하고 공모를 통해 표어를 선정했다.

표어는 8월 9일(목)부터 17일(금)까지 공모해 208명(398편)이 응모하였다. 심사를 통해 4편을 선정하여 8월 23일(목) 그 결과를 발표했다.

포스터와 선정된 표어는 아래와 같다.



### 최우수작

- 책! 세상을 채우고, 독서! 세상을 넓히다.  
(천명철, 충남평생교육원 문헌정보부)

### 우수작

- 책 읽는 많은 눈빛 다가오는 지혜의 삶  
(남삼현, 경기도 과천시)

### 가작

- 독서! 마음의 부자가 되는 행복한 습관  
(김미정, 경기도 용인시)
- 찾는 기쁨, 읽는 행복, 함께하는 도서관  
(박은경, 경기도 남양주시)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지금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장, 대전광역시와 경기도 방문



〈‘망의 책 대전본부’ 출범식〉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한상완 위원장은 지역대표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7월 24일(화) 대전광역시와 25일(수) 경기도를 각각 방문하여 박성효 대전시장과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면담했다.

이번 방문은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및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출범과 그 의의를 알리고 개정 「도서관법」이 도서관정책에 있어서의 시·도의 역할의 중요성을 명확히 요청하고 있음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한 위원장은 구체적으로는 법에 명시된 지역대표도서관의 설치의 필요성과 관련 조례 제·개정,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의 구성 등에 시·도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하였다.

현재 대전광역시와 경기도는 지역대표도서관 운영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고, 대전광역시는 ‘한밭도서관’을 지역대표도서관으로 지정할 예정이며, 경기도는 8월 초 조례 제정 후 공모를 거쳐 지역대표도서관을 지정할 예정이다.

특히, 박성효 대전광역시장과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이번 한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도서관이 지역의 복합문화시설로서 주민과 매우 친근한 공간임을 인지하게 되었으며, 지역대표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한상완 위원장은 이번 대전광역시와 경기도 방문을 시작으로 8월 중순에는 인천광역시를 방문, 역시 도서관 발전에 인천광역시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대전광역시를 방문한 한 위원장과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관계자는 대전광역시가 책읽기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 새롭게 구성된 ‘희망의 책 대전본부’ 출범식과 ‘책 읽는 도시 대전’ 선포식에도 참석하여, 책 읽기에 적극 나선 대전광역시의 노력을 격려했다.

경기도 방문에서는 도내 우수전문도서관 시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을 방문해 농촌진흥청 주요 인사를 만나 도서관 시찰 및 현황 보고,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정책적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기사제공 :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농업과학도서관을 시찰중인 한상완 위원장〉

## 협회소식

### 전문위원회 위원 위촉

우리협회는 2007년 7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 까지 임기의 새로운 전문위원회(2007. 8. 1. 현재)를 구성하고 다음과 같이 위원을 위촉하였다.

#### ■ 전문위원회 위원 명단(2007.7.1.-2009.6.30)

(위원명단은 가,나,다 순임)

#### □ 기획정책위원회

- 윤희윤(대구대학교 교수, 위원장)
- 김지봉(경기도립중앙도서관 과장)
- 김태식(한성대학교도서관 부장)
- 장덕현(부산대학교 교수)
- 정현태(도서관연구소 사무관)
- 조영추(무등도서관 관장)
- 최희윤(KISTI 지식정보센터장)

#### □ 권익협력위원회

- 문영철(연세대학교도서관 부관장, 위원장)
- 김경자(부산구포도서관 관장)
- 김상태(충남대학교도서관 과장)
- 김일환(인천계양도서관 관장)
- 백중석(법원도서관 과장)
- 유광호(중앙대학교안성캠퍼스도서관 과장)
- 이지호(한국원자력연구원 기술정보팀 책임연구원)

#### □ 지식정보격차해소위원회

- 신종원(대구서부도서관 관장, 위원장)
- 심민석(국가인권위원회 인권자료실장)
- 윤영욱(정독도서관 과장)
- 이성덕(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 사무관)
- 이재호(경북점자도서관장)
- 황태숙(울산중부도서관 과장)

#### □ 분류위원회

- 남태우(중앙대학교 교수, 위원장)
- 강순애(한성대학교 교수)
- 김비연(고려대학교도서관 과장)
- 박재혁(대림대학 교수)
- 배영활(경북대학교도서관 사서)
- 서경은(중앙여자고등학교 사서교사)
- 여지숙(계명대학교 강사)
- 오동근(계명대학교 교수)
- 황 면(국립중앙도서관 사무관)

#### □ 목록위원회

- 김정현(전남대학교 교수, 위원장)
- 김은수(연세대학교 교수)
- 노지현(부산대학교 교수)
- 박일심(국립중앙도서관 사서)
- 서진영(고려대학교도서관 정리과장)
- 이성숙(충남대학교 교수)
- 이재선(도서관연구소 사무관)
- 조수희(이화여자대학교중앙도서관 사서)

#### □ 자료보존위원회

- 이숙현(어린이청소년도서관 관장, 위원장)
- 김경애(부산연산도서관 관장)
- 김현남(성남도서관 관장)
- 박경련(원광대학교 의학도서관)
- 오희숙(한밭도서관 사서)
- 이귀복(국립중앙도서관 사무관)

#### □ 독서문화위원회

- 황금숙(대림대학 교수, 위원장)
- 곽현주(어린이도서관연구회 실장)
- 김수경(부산대학교 강사)
- 김정근(부산대학교 명예교수)
- 박순혜(영일초등학교 사서교사)
- 서계녀(한국교원대학교 파견)
- 이권우(도서평론가)
- 최지혜(부평기적의도서관 관장)

- 국제교류위원회  
조현양(경기도립대학교 교수, 위원장)  
김성희(중앙대학교 교수)  
박소연(덕성여자대학교 교수)  
박은봉(국립중앙도서관 사무관)  
이안나(국회도서관 사무관)  
최재황(경북대학교 교수)  
한종엽(한국해양연구원 기술정보실장)
- 남북도서관협력위원회  
김광진(국회도서관 국장, 위원장)  
변태현(경북대학교도서관 수서정리과장)  
양덕수(청강문화산업대학 과장)  
오세훈(광운대학교도서관 과장)  
이 상광(주독립운동기념도서관 과장)  
정분희(통일부 통일사료관리팀장)  
조왕근(한양대학교백남학술정보센터 전자정보팀장)
- 출판위원회  
이상복(대진대학교 교수, 위원장)  
곽승진(충남대학교 교수)  
김상철(서수원도서관 관장)  
김영민(고려대학교도서관 특수자료관리부장)  
김영석(명지대학교 교수)  
이순옥(청량고등학교 사서교사)  
홍재현(중부대학교 교수)
- 재정사업위원회  
남영준(중앙대학교 교수, 위원장)  
정재영(서강대학교로울라도서관 사서)  
조정근(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정보전산실장)  
황옥경(서울여자대학교 교수)

## 제44회 전국도서관대회 참가신청 접수 중

- 참가신청 1차 마감 8월 31일 -

우리협회가 주관하고 문화관광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후원하는 제44회 전국도서관대회가 10월 10일

(수)부터 10월 12일(금)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제주 ICC)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는 “오늘보다 더 거대한 세계 속의 도서관”을 주제로 정하고 새로운 도서관 시대를 열어갈 중요한 시점에서 도서관의 가치와 그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공모를 통해 선정한 12편의 주제발표(연구논문 5편, 사례발표 7편)와 우리협회 전문위원회 및 도서관 관련 단체들의 참여로 진행되는 18개의 세미나 및 5개의 워크숍 등의 학술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또한 도서관 관련 업체들이 참가해 도서관 관련 각종 신기술을 선보이는 도서관정보화 전시회도 열리며, 올해 처음으로 ‘포스터세션’도 마련되었다.

이번 제44회 전국도서관대회 1차 참가접수 마감은 8월 31일(금)까지, 2차 마감은 9월 28일(금)까지이다. 9월 29일(토) 이후에는 대회 당일 현장에서 등록할 수 있다. 이번 도서관대회에 많은 참가를 기대한다.

[상세한 내용은 본지 76~101쪽 참조]

[문의 : 협회 사무국, ☎ 02-535-4868 ]

## 한글본 한국십진분류법 제5판 발간 작업 시작

▶ p4에서 이음

이번 회의에서는 우선 분류표와 색인의 표기를 한글로 하되, 고유명사·전문용어 등은 한자와 영문 표기를 병기하기로 하는 한편, 학문과 사회현상의 변화에 따른 본표의 개정 작업도 진행키로 했다.

이번 개정작업의 실무를 맡은 분류위원회 위원은 다음과 같다.

### ■ 분류위원회 위원명단

〈위원장〉

· 남태우(중앙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총괄

(☎) 02-820-5145 (e-mail) namtw@cau.ac.kr

〈위원〉(가나다순)

- 강순애(한성대 지식정보학부 교수) 100 · 900  
(☎) 02-760-4085 (e-mail) h4085@hansung.ac.kr
- 김비연(고려대중앙도서관 과장) 300  
(☎) 02-3290-2783 (e-mail) korkby@korea.ac.kr
- 박재혁(대림대 문헌정보과 교수) 400  
(☎) 031-467-4961 (e-mail) jhpark@daelim.ac.kr
- 배영활(경북대중앙도서관 사서) 200  
(☎) 053-950-6513 (e-mail) yhbae@knu.ac.kr
- 서경은(서울중앙여자고등학교 사서교사) 600  
(☎) 02-363-6818 (e-mail) smose@paran.com
- 여지숙(계명대 문헌정보학과 강사) 500  
(☎) 017-522-8243 (e-mail) wuhaha@chol.com
- 오동근(계명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700 · 800  
(☎) 053-580-5436 (e-mail) odroot@kmu.ac.kr
- 황 면(국립중앙도서관 사서사무관) 000  
(☎) 02-590-0632 (e-mail) myun1024@nl.go.kr

〈사무국〉

- 이경구(사무총장)  
(☎) 02-535-4868 (e-mail) lk1947@kla.kr
- 한국도서관협회 사무국  
(☎) 02-535-4868 (F) 02-535-5616 (e-mail) w3master@kla.kr

## 전문위원회

### 분류위원회, 2007년도 제1차 회의

- 일시 : 2007년 7월 30일(월) 15:00~17:30
- 장소 : 협회 사무국 회의실
- 참석자 : 남태우(위원장) 강순애, 김비연, 박재혁, 서경은, 여지숙, 오동근, 황면(이상 위원), 이경구(사무총장), 최인경(이상 사무국)

- 안건 : KDC 5판 발간에 관한 일
- 회의 내용
  - 분류위원회 위원 위촉장 전달
  - 안건 설명(사무총장)
    - 한글표기를 우선으로 한 한글판 KDC 발간과 학문 및 사회 현상 변화에 따른 분류표의 개정이 필요함.
    - 8월 말 완성되는 KDC 4판 한글파일을 기본 자료로 해서 분류 개정 작업
  - 논의 및 결정사항
    - 각 위원이 주제별 · 작업 별로 역할을 분담하여 개정작업을 추진하기로 함.
    - 추가로 위원 선임이 필요함.
    - 앞으로 정기적 · 비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해 발간작업을 진행하기로 함.
    - 사무국 내에 분류개정을 지속적으로 담당할 전문 직원이 필요함.
    - KDC 5판은 4판의 오류를 수정하는 것도 중요함.
    - 참고 자료 확보(DDC21 · 22판 번역본, 일본십진분류법, 중국십진분류법 등)
    - 우선적으로 KDC 4판 개정을 위한 지침을 정해야 함. 이는 추후 논의를 통해 정하기로 함.
  - KDC 4판 개정 지침 관련 추후 논의 사항
    - 분류 개정 범주
    - 영어 · 한문 · 전문특수용어 등의 병기와 표기 방법
    - KDC 4판 관련 사례조사
  - 관종별 각종 사례 수집
  - 홈페이지 · 도서관문화 등을 통한 KDC개정작업의 알림 및 의견 요청
  - 도서관대회에서 공청회 개최(지침 · 가이드라인 발표)
    - 타 기관 자문 요청 관련 체계 정리
    - 사무국 내에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장소 마련
    - 한글판 KDC 4판의 우선 보급(CD제작)을 논의했으나 개정에 전념기로 함.
    - KDC 5판 발간을 위한 자금(국고지원 · 기금 등) 마련 방안
    - 각종 전문도서관을 위한 간략판의 제작 여부 검토

- KDC 5판의 간략판 및 해설본 제작
- 주제별 담당위원을 정함(7쪽 참조)
- 제2차 회의는 9월 7일(금) 14시 30분에 개최하기로 함.

## 목록위원회, 2007년도 제1차 회의

- 일시 : 2007년 7월 31일(화) 14:00~17:00
- 장소 : 협회 사무국 회의실
- 참석자 : 김정현(위원장), 김은수, 노지현, 이재선, 조수희(이상 위원)
- 안건 : 1) 목록규칙의 국제동향  
2) 2007년 목록위원회 활동 계획 검토  
3) 기타사항
- 회의 내용
  - IME ICC 2008년까지는 의견을 내고 조율하는 과정이 계속 될 예정
  - RDA 전면 개정 중, 2009년쯤 출판될 예정
  - KCR 5판 개정작업
    - KCR 개정시 많은 예시와 예시를 새롭게 구성(총칙 예시, 추가 · 수정)
    - KCR에서 띄어쓰기와 슬래쉬(/) 부분의 오류가 상당수 발견되고 있어 개정작업이 필요함. 국제적인 규칙인 RDA가 출판되어야 KCR을 개정하고 출판함.
  - 전거레코드
    - 전거레코드, 전거파일을 만들어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가 높음.
    - 전거 표목을 둘 경우 현재까지 작성되었던 것들을 모두 수정하기 위해 시간, 인력, 비용 등이 든다는 단점과 전거표목을 둔다면 왜 그 표목을 전거로 두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계속 논란될 수 있음.
    - 여러 가지 이론을 대입시켜 시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법
    -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은 내부 규칙을 정해 '국제인명전거파일'을 작성 중임.
- 국립중앙도서관도 하나의 도서관이고, 현재는 각 도서관마다 기준과 규칙이 있기 때문에 국립중앙도서관이 작성한 것을 그대로 따르는 어려운 것임. 공청회나 전국 도서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한국도서관협회 목록위원회에서 검토와 정리, 수정 보완을 통해 승

인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는 있겠음.

- 기타사항 : 국제 동향에 대해 귀를 기울여서 국제회의에도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목록위원회가 되었으면 함.

※ 위원 2명을 추가 선임 요청함 : 고려대학교 서진영, 국립중앙도서관 박일심 → 이후 본인들과 접촉 후 확정함.

## 협의회소식

###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제48차 도서관·정보학 학술세미나 개최



(사진제공 :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는 대학도서관의 정보교류와 사서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8월 9일(목)부터 10일(금)까지 강원대학교 60주년 기념관에서 제48차 도서관·정보학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 ■ 프로그램

##### 〈초청강연〉

· 생활의 과학화, 과학의 생활화 / 권오길(강원대학교 교수)

##### 〈주제발표〉

· 국공립대학도서관의 외부이용자 서비스에 관한 고찰  
/ 홍금초(강원대학교도서관 사서)

· 강원대학교 독서교육지원시스템 CBRT&KCBRT  
/ 김형각(강원대학교도서관 사서)

〈특별강연〉

· 춘천근교의 은둔자 유적지 / 이경수(강원대학교도서관 관장)

〈사례발표〉

· 강원대학교 통합의 성과와 과제  
/ 박건호(강원대학교도서관 사서)

## 국내 소식

### 국립중앙도서관, 미국 하버드대학 한국고서 디지털화

국립중앙도서관과 하버드대학교는 소장자료 디지털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2010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하버드대학교가 소장하고 있는 국내 미소장 한국고서 1천여책을 디지털화할 예정이다.

디지털화하는 자료들은 필사본을 비롯하여 목판본 등 국내에 판본이 소장되어있지 않은 귀중자료와 그동안 국내 연구자들에게 의해 논문으로만 소개되었던 『김원전』 등 희귀자료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1987년부터 국립중앙도서관이 추진해온 '해외소재 한국고서 조사 및 수집사업'의 일환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은 지금까지 일본, 중국, 프랑스, 대만 등 세계 26개 기관에 산재해 있는 국내 미소장 한국고서 7천 여 책을 영인 수집하여 제공해 왔다.

수집한 디지털 이미지들은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www.nl.go.kr/korcis/)을 통해 학생과 연구자는 물론 일반인들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 각 지방자치단체, 지역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한 조례 제정

올해 4월 시행된 「도서관법」에 근거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한 조례'를 제정 중에 있다.

경기도는 경기도의회 임기석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경기도 도서관 육성 및 대표도서관 설치·운영 조례'를 8월 6일(월) 공포했다.

경기도 도서관 관련 조례는 지역 간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 수혜대상 확대 및 도서관 서비스의 개발을 위한 지도·지원을 명문화해 지식정보복지 구현을 경기도의 의무조항으로 규정하였다. 조례에는 경기도 대표도서관 및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의 설치·운영, 지식정보 격차 해소, 공공도서관의 지속적인 설립·육성 규정을 담고 있다.

[기사제공: 경기도사이버중앙도서관]

전라북도도는 도내 도서관의 육성발전시책에 지역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8월 11일(토)부터 30일(목)까지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전라북도 대표도서관 설치·운영과 관련해 도내 공공도서관 중 하나를 지정하여 지역대표도서관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과 전라북도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 2기 수요인문학 강좌 실시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은 '타인의 고통과 문학'을 주제로 7월 18일(수)부터 9월 12일까지 매주 수요인문학 강좌를 진행한다.

이번 인문학 강의에서는 한국의 대표적인 8명의 문인을 알아보고 이들이 어떻게 한 시대의 고통에 민

감하게 반응하고 교감했으며, 그것이 어떻게 성숙한 문학적 성취를 이루었는지를 함께 성찰하고자 한다.

강의는 총 8주 과정이며, 오래된 여성잔혹사(나혜석), 갠한 시대, 청춘의 비애(윤동주), 골방의 사색생활(이상), 카페에서 느낀 슬픔(박태원), 싸우는 시대의 쟁기질(신동엽), 풀과 바람의 로맨스(김수영), 맑은 노래, 굴절된 상황(천상병), 낭만과의 칼날(임화)로 구성되어 있다.

---

### 경기도, 9월 독서의 달 표어 공모 결과 발표

---

경기도는 9월 독서의 달을 맞이해 독서의 생활화를 위해 도서관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독서인구 저변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내용의 표어를 공모해 8월 10일(금) 선정 작품을 발표했다.

7월 24일(화)부터 8월 6일(월)까지 공모한 결과 181편이 접수되었으며 최우수작은 이천시 관고동 문석기씨가 제출한 ‘보는 기쁨 읽는 재미, 독서하며 얻는 행복’이 선정되었다.

우수작은 안산시 고잔동 김선미씨의 ‘지혜는 독서에서, 정보는 도서관에서’와 수원시 화서동 임성애씨의 ‘빌케이즈도 독서박사, 히딩크도 책벌레’ 등이 선정되었다.

최우수작과 우수작에는 각각 상품이 수여되고 최우수작은 경기도 독서의 달 포스터에 공식 표어로 활용돼 경기도 전 공공기관 등에 배포된다.

기사제공 : 경기도사이버중앙도서관

---

### 용인시 행정타운에 디지털정보도서관 개관

---

용인시는 7월 31일(화) 용인 행정타운 내 문화예술원에 용인디지털정보도서관을 개관했다.

용인디지털정보도서관은 문화예술원 1층과 2층의 401㎡ 규모이며, 1층은 열린 디지털정보실과 열린 자료실로, 2층은 열린 독서공간과 디지털정보실로



〈사진제공 : ©용인디지털정보도서관〉

구성돼 PC 60대와 DVD 자료, 시민교양도서, 정기간행물 등을 갖췄다. 또한 도서 8,000여권과 DVD 등 비도서 3,000여점, 학술지와 한국학 자료, 향토자료 등 원문 DB 83종, 전자책 등 7,300종, 기타 음악서비스 등 18,000여종을 서비스한다.

한편 홈페이지(dlib.yonginlib.or.kr)를 통해 맞춤정보서비스 및 상호대차 서비스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출처 : 뉴스리더 8월 1일재

---

### 광명시하안도서관, 리모델링을 통해 디지털도서관으로 재개관

---



〈사진제공 : ©하안도서관〉

광명시하안도서관은 8개월 간의 리모델링 공사 끝내고 8월 1일(수) 디지털도서관으로 재개관했다.

지난 1993년에 개관한 하안도서관은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도서관 고유 기능인 정보제공 및 문화 활용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첨단정보실 등의 문



화공간과 승강기 등 편의시설을 새로 설치했다.

재개관한 하안도서관은 1층에 어린이실을 새롭게 설치했고, 2층에 종합자료실, 3층에 디지털자료실과 열람실 및 심터, 4층에 문화교실과 동아리실, 옥탑에 옥외 휴게실 등을 마련했다.

출처: 경기신문 8월 3일자

## 울산시민연대, 마을도서관운동 강연회 개최

울산시민연대는 7월 9일(월) 울산시민연대 교육관에서 '대전 마을도서관 이렇게 시작했다'라는 제목으로 강영희씨(알짜마을어린이도서관 관장)의 강연회를 가졌다.

이번 강연회는 대전지역의 마을도서관 만들기의 시작과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 등에 대한 강의와 함께 도서관과의 네트워크에 대해 토론했다.

이번 강연회를 통해 대전지역의 경험을 바탕으로 울산지역의 마을도서관 만들기 운동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출처: 뉴시스 7월 8일자

## 충청북도중앙도서관, 청주세관에 책 대출

충청북도중앙도서관은 청주세관과 순회문고 운영 협약을 통해 정기적으로 도서를 대출해 주기로 했다.

도서관에 따르면 청주세관이 책을 읽고 싶어 하는 직원들을 위해 순회문고를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해 옴에 따라 순회문고를 운영하기로 하고 이날부터 도서 대출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청주세관은 도서관으로부터 한 차례에 도서 200권을 대출받게 되며 60일 이내에 다른 책으로 교환하게 된다.

도서관은 시간이나 거리 등 여러 제약으로 방문 이용이 어려운 기관 및 단체 13개소에 도서를 대출해 주는 순회문고를 운영해 오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7월 30일자

## 대구광역시립동부도서관, 동구보건소와 북스타트 운동 협약 체결



〈사진제공 : ©대구광역시립동부도서관〉

대구광역시립동부도서관은 지역의 공공도서관으로서 처음으로 8월 10일(금) 대구광역시동구보건소에서 '동부도서관-동구보건소의 북스타트 운동 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도서관은 동구보건소 모자보건실 독서환경 조성을 위해 순회문고를 새로 개설하고, 어린이 그림책 집단대출, 북스타트 책꾸러미, 홍보자료 등을 지원키로 했다.

동구보건소는 예방접종 방문 영유아를 대상으로 책꾸러미 배부를 통한 북스타트 운동 확산에 적극 협력하고, 저출산 시대에 영유아 건강관리, 영양상담, 예방접종 등 건강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의 전문강사 인력지원과 북스타트 운동 연계 특별행사 공동개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상호 협력키로 합의했다.

또한 보건소와 연계해 외출이 힘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도서 무료택배서비스", "신간도서목록제공", "책읽어 주기"와 같은 재활프로그램도 공동으로 운영키로 했다. 기사제공: 대구광역시립동부도서관

## 순천시, 그림책 버스 '파란 달구지' 운영

전남 순천시가 농·어촌 등 도서관문화 소외 지역 어린이들을 위해 마련한 '움직이는 기적의 도서관'

그림책 버스인 '파란 달구지' 를 운영한다.

8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 '파란 달구지' 그림책 버스는 온돌 바닥에 빔 프로젝터와 스크린을 설치해 그림 전시, 멀티동화, 영화를 상영하고 책 읽어주기, 한글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파란 달구지' 버스는 우선 도서관이 멀고 작은도서관도 없는 지역의 초등학교 분교, 마을회관, 사회시설 등 10여 곳을 찾아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한다.

출처 : 뉴시스 7월 25일지

## 김해시, '책 읽는 도시 김해' 사업 추진



(사진제공 : ©김해시청)

김해시는 언제 어디서든 책을 볼 수 있는 독서 환경 조성을 위해 '책 읽는 도시'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김해시는 책읽는사회문화재단과 함께 8월 1일(수) '책 읽는 도시 김해' 만들기 협약식을 가치고 향후 지식정보의 기반시설 구축과 독서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키로 했다.

이에 앞서 7월 23일(월)에는 '책 읽는 도시 김해' 프로젝트 시민설명회를, 7월 31일(화)에는 '책 읽는 도시 김해 추진협의회' 창립총회를 가졌다.

시와 재단은 이번 협약을 통해 '책 읽는 도시 김해' 종합계획 마련, 민관 합동위원회 구성, 어린이 전용도서관 기적의 도서관 신축, 학교도서관 지원, 북스타트 도입, 책 읽는 도시 행사 공동 개최, 정보격차 해소 대책 수립 등 10가지 사업을 공동으로 추

진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시는 오는 9월에 도서관 정책담당부서를 설치해 '책 읽는 도시 김해 만들기' 종합계획 및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10월 초에는 전 시민의 책읽기 붐 조성을 위해 '책 읽는 도시 김해' 선포식을 가질 계획이다.

출처 : 연합뉴스 7월 31일지

## 2007 전국 시민운동가대회에서 도서관 단체 2곳 수상

7월 20일(금)에 열린 2007 전국시민운동가대회 풀뿌리시민운동사례공모 시상식에서 도서관 관련 단체 2곳이 수상했다.

부산시 반송지역 시민단체인 희망세상의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도서관을 만들어 주세요' 사업이 최고 상인 풀뿌리상을 수상했다. 이 모임은 2006년 해운대구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반송지역의 어린이들에게 방과 후 쉼터를 만들어주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어 이 사업에 공감하는 주민들의 잇따른 참여로 현재 약 100㎡(30평)의 부지를 매입해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도서관을 건립해 오는 가을 개관할 예정이다.

풀뿌리상은 대전마을어린이도서관협의회 '마을마다 어린이도서관만들기를 통한 생활공동체 기반구축' 사업이 수상했다.

'대전시민사회연구소', '동화 읽는 어른', '모퉁이마을어린이도서관' 과 함께 '대전마을어린이도서관만들기' 모임을 구성하고 어린이 도서관학교를 연 후 도서관에 애정이 있는 8개 마을의 주민모임이 결성됐고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4개 마을에 도서관이 생겼다. 이후 '전민동모퉁이마을어린이도서관' 을 포함한 민간에 의해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6개의 도서관만들기 모임이 '마을어린이도서관협의회' 로 발전했다.

출처 : 시민사회신문 7월 23일지

## 여름방학을 맞아 다양한 학교도서관 연수 열려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학교도서관 사서와 사서교사, 도서관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학교도서관연수가 개최됐다.

전국학교도서관담당교사모임은 8월 6일(월)부터 9일(목)까지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에서 2007 여름 연수를 가졌다. 전국의 사서교사, 도서관담당 교사들 약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체험으로 익히는 학교도서관 운영'을 주제로 한 강연 및 워크숍, 책과 놀이를 결합한 도서관 운영 및 활용 방안, 독서 교육 사례 공유 및 주제 토론, 문화기행, 도서축제 기획 등을 마련했다.

서울초중등학교도서관교육연구회는 2007학년도 여름방학 사서교사 직무연수를 가졌다. 6월 25일(월)부터 7월 10일(화)까지 열린 이번 연수에서는 전국의 사서교사가 모여 '학교도서관과 독서논술'을 주제로 그림책을 이용한 독서치료, 학교도서관 독서논술 사례, 사서교사가 주관하는 어머니 독서회 등을 다루었다.

대전문화예술교육연구회는 대전 및 충남 초·중등 교원 40여명을 대상으로 '행복한 책과 사유 - 독서교육 다시 쓰기'를 8월 6일(월)부터 8월 10일(금) 혜천대학교 동방관 세미나실에서 가졌다. 이번 연수는 교사들이 독서교육에 대한 가치관과 태도를 새로이 정립하고 독서교육과 학교도서관을 활성화해 이를 교육과정에 직접 접목하여 실행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아산교육청은 8월 6일(월) 교육청 회의실에서 충청남도 학교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에 선정된 9개교 교감 및 업무 담당자가 모여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연수를 가졌다. 이번 연수를 통해 학교도서관 활성화추진에 필요한 교수·학습 자료 확충 계획, 학교도서관 운영·관리 인력 배치 및 활용계획, 사업 계약 및 공사 추진 방법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사)행복한아침독서가 주최하고 경기문화재단이

후원한 '2007 아침독서학교'는 7월 23일(월)부터 28일(토)까지 파주출판단지내 김영사 강의장에서 열렸다. 초등학교 교사 및 학교도서관 사서가 참석한 가운데 아침독서운동과 우리나라 어린이책, 독서교육에 대한 강연회로 진행되었다.

## 서울시립어린이도서관, 장애체험 활동 행사 개최

서울시립어린이도서관과 (사)한국시각장애인협회는 8월 22일(수) 초등학교와 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장애체험활동 및 점자이름찾기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단체와 연계한 체험학습 프로그램으로 어린이들에게 시각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점자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마련됐다.

장애체험활동은 오전 10시~12시까지 어린이도서관 문화교실에서 참가어린이 30명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에티켓, 시각장애인 생활체험, 한글점자 맛보기 등의 내용을 진행했다. 점자이름찾기는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어린이도서관 자료관 1층 로비에서 이용자를 대상으로 투명스티커에 점자이름을 찍어 주는 행사를 가졌다. [기사제공:서울시립어린이도서관]

## 동화기차어린이도서관, 도서관 동아리 공동행사 개최

부천문화재단 동화기차어린이도서관은 7월 21일(토) 복사골문화센터 1층 앞마당에서 도서관 동아리들의 공동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동화기차어린이도서관의 4개 동아리가 모여 작은 음악회 및 동아리 장기자랑, 일일 찻집, 영화상영 등을 선보였다.

도서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도서관 친구'의 결성과 향후 동화기차어린이도서관 후원회의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출처: 경기매일 7월 11일자]

## 김해룡 박사가 기증한 '김옥순기념도서관' 현판 제막식 개최 예정



우리나라 원로 사서 중 한 분인 김해룡 박사가 한서대학교 태안분교 항공대학에 기증한 '김옥순기념도서관' 현판 제막식이 9월 28일(금) 오전 11시 동서관에서 거행된다. 이 도서관은 평소 부군의 뜻을

따라 도서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서관 설립에 적극 지원했던 부인 김옥순 여사의 이름으로 헌정되었다. 김옥순 여사는 몇 해 전 미국에서 작고하였으나 유해는 고국으로 옮겨져 이곳 한서캠퍼스가 내려다 보이는 양지바른 곳에 안장되었다.

김해룡(金海龍: 미국명 Harry-Young Kim) 박사는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인 1958년, 한국인 사서로 미국 문화원(당시 USIS)도서관에서 20여 년간 도서관장으로 근무하다가 1978년 미국으로 건너가 계속해서 도서관활동 및 교육문화 사업을 펼치면서 한국의 도서관 발전과 미국 사회의 교육 및 도서관 증진에 많은 공헌을 하고 계신 우리나라 도서관계의 원로 사서의 한 분이다. 지금은 미국에 거주하면서 LA에서 Harry-Young Foundation과 Library Fund를 설립·운영하는 한편, 한서대학교 LA항공대학원장직을 역임하면서 지금까지 국내외에 도서관을 설립하고 장서수집도 돕고 있다. 또한 매 해마다 서너 차례 고국을 방문하면서 대학 내에 몇 개의 도서관을 설립하여 귀한 장서를 기증하고 학술저널의 지난호들을 일일이 찾아내어 보충해 주고 있다.

지금까지 김해룡 박사가 건립을 돕고 장서를 기증한 도서관은 이번 김옥순기념도서관까지 모두 5곳으로 다음과 같다.

- ① 한서대학교 어린이도서관  
/ 장서 약 40,000권(주로 영서)
- ② 한서대학교 해룡의학도서관  
/ 의학장서 약 400,000권
- ③ 한서대학교 해룡기념관  
/ 아카이브스 및 고서 약 10,000권
- ④ Hanseo University in U.S.A., Harry Young Memorial Library / 원서 약 60,000권
- ⑤ 한서대학교 태안항공대학, 김옥순기념도서관  
/ 약 3,000권 현재 선적 중

이처럼 김해룡 박사는 사서로서 그동안도 도서관 사업에 전 생애를 바쳐 왔고, 지금은 그의 이름으로 도서관을 설립하여 대학에 기증하고 주제에 따라 직접 장서까지 수집해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서구에서도 구하기 어려운 초기간행본은 물론 없어진 결본도 찾아 일일이 보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김 박사의 모든 도서관사업은 외부의 지원 없이 순전히 개인 자산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큰 의미가 있다. 이 같은 선배 원로 사서의 도서관 정신은 후배 사서들에게 귀감이 된다.

[기사제공: 최정태,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명예교수]

## 한국점자도서관, 책읽어주기 프로그램 운영

한국점자도서관은 2006년부터 시각장애아동을 위한 책읽어주기 프로그램 '들려주고 들어주는 그림 책방'을 운영해왔다.

이 프로그램은 5세~10세의 시각장애아동을 비롯해 그 가족을 포함한 비장애아동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통합프로그램이다.

올해 상반기에도 10회에 걸쳐 그림책방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5월에는 경기도 파주 벽초지 수목원에서 생태체험, 6월에는 제3회 남이섬세계책나라축제, 7월에는 서울시 종로 돌로스소극장에서 그림



〈사진제공 : ©한국점자도서관〉

책 상영 등의 행사를 가졌다.

하반기에는 매주 첫째·셋째주 토요일 한국점자도서관 2층 서고에서 “내 마음 속을 들여다보는 들려주고 들어주는 그림책방”을 주제로 기쁨, 화, 슬픔, 궁금함, 돕고 싶은 마음 등에 관련된 그림책을 읽고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는다. [기사제공: 한국점자도서관]

## 한국장애인문화협회, 보이스아이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사)한국장애인문화협회는 시각장애인 등 정보소외계층의 도서관 이용 시 도서 이용의 편리함과 도서관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2007년 행정자치부 민간단체 공익사업의 하나로 ‘정보소외계층인 시각 장애인과 학습(독서)장애인 등의 정보접근성 확대를 위한 보이스아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협회는 도서관들을 대상으로 본 사업을 소개하기 위하여 8월 10일(금) 국회도서관강당에서 행정자치부와 한국도서관협회 후원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현재 우리 사회는 디지털 정보시대를 맞아 모든 국민들이 보다 자유롭게 지식과 정보자원에 접근하고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 전체의 약 9%에 가까운 시각장애인이나 독서장애인들은 보편적인 교육 뿐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정보활용면에서도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지식정보격차라는 새로운 사회적 불평등 현상을 도서관이 나서

서 적극 해소해야 하지만, 아직 우리 도서관 현실에서는 제대로 된 서비스의 개발이나 제공이라는 점에서는 과제가 적지 않다. 이제 도서관들은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시각장애인 또는 노인 등 독서장애인들이 타인의 도움없이 비장애인과 같이 스스로 다양한 정보매체에 접근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현재까지 보급되고 있는 시각장애인 정보접근성 대표적 수단으로서 점자와 녹음도서, 그리고 스크린리더가 있지만 실제로 시각장애인들이 학습과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현실에서 이같은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 즉 보이스아이라는 기술이 개발되어 도서관에서 이를 적극 활용할 경우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 수행에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설명회에서 (사)한국장애인문화협회 곽영훈 기획실장은 시각장애인이나, 노인층, 문맹자들이 특수한 인쇄물이 아닌 비장애인과 함께 읽는 일반인쇄물의 책장을 손으로 넘겨 가면서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보이스아이(소리눈)라는 2차원 바코드 인코딩 기술을 소개하였다. 보이스아이는 컴퓨터에서 디지털 정보를 압축저장한 이미지화일한 바코드(심볼)를 각종 인쇄물의 우측상단 지정된 위치에 삽입하여 원본내용과 함께 종이에 인쇄하고, 시각장애인이나 독서장애인들은 보이스아이 메이트(음성 출력기)를 통해 자연인의 목소리로 타인의 도움 없이도 책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한 획기적 기술이다. 이날 설명회는 보이스아이 기술을 소개하고 실제 참석한 도서관에 한해서 직접 방문, 음성출력기사용방법 교육 및 음성출력기, 심볼이 생성된 도서를 무료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사업으로 도서관이 시각장애인과 독서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제공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함으로써 실제 도서관을 통한 시각장애인 등의 지식정보활용이 더욱 편리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하고 향후 보이스아이 기기를 설치하게 된 도서관은 다음과 같다.

종로도서관, 정독도서관, 서대문구립이진아기념도서관, 은평구립도서관,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사랑샘도서관, 느티나무도서관, 강북구립도서관(강북문화정보센터), 남양주 별내도서관, 남양주시진건도서관, 인천시 화도진도서관, 경기도립중앙도서관 김포분관, 울산남부도서관, 김해시립 장유도서관, 김해칠암도서관, 공주시립강북도서관, 대전 한밭도서관, 금천구립정보도서관(17관, 이상 무순)

한 편 이상민 의원은 현행 「저작권법」이 시각장애인 등을 위해 허용한 점자 복제 등 방식으로는 일부만이 이용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으나, 최근 IT기술의 발달과 인쇄품질의 향상으로 인쇄물 음성변환출력기용 정보기록방식을 활용하여 인쇄물 음성변환출력기기가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 통과되고 보건복지부 재활보조기구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등록된 바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용 정보기록방식을 저작권법에 포함시켜 이에 대한 활용을 높이고 이를 통해 시각장애인의 인쇄물 정보접근성 향상, 차별금지, 사회 참여 및 평등권을 실현코자 8월 9일(목) 의원 16명과 함께 「저작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기사제공 : (사)한국장애인문화협회]

휴대용 플레이어 / 보이스아이 리더

☐ 보이스아이 Mate / 보이스아이 PC-Mate의 스캐너를 보이스아이 심볼 위에 올려 놓으면 자동 인식을 통해 음성 또는 확대된 화면으로 정보접근 가능



- 음성 출력
- 내용 저장, 휴대 가능
- 컴퓨터로 전송 다양하게 활용가능
- 음성 출력
- 화면 확대
- 스크린 리더를 활용한 정보 접근 가능

〈음성 출력기를 이용하여 책을 읽고 있는 모습〉

## 2007 어린이 평화책 순회전시회에서 서울 개최



〈사진제공 : ©평화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2007 어린이 평화책 순회전시의 일환인 ‘우리 애 길 들려줄께’ 서울 전시가 8월 1일(수)부터 18일(토)까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평화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의 평화공간 SPACE\*PEACE에서 열렸다.

올해로 2회를 맞는 ‘어린이 평화책 순회전시회’는 6월부터 전국 20개 어린이도서관과 문화공간에서 이루어졌다.

이번에 전시된 평화책은 이산가족, 재미동포의 이야기, 노근리, 정신대, 미혼모, 수단 내전, 소년병, 새터민, 장애, 기아, 아동인권, 유대인 학살 등의 다양한 이야기책 100권으로 아이들이 자신의 삶에서 평화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시된 어린이 평화책 100권 이외에도 서른 여섯개의 서랍장 ‘열어보림’을 마련해 그 안에 평화책 속 이야기와 관련 된 소품들을 넣어놓아 아이들에게 다양한 생각할 거리를 마련했다.

이 전시회는 9월에는 부산 재송어린이도서관과 부천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에서 진행되며, 10월에는 일산 강아지퐁어린이도서관, 원당 어린이도서관 책놀이터, 파주 꿈꾸는 교실 등지에서도 진행될 계획이다.

〈출처 : 컬처뉴스 8월 1일자〉

## 부천시지역작은도서관협의회, 책읽는 도시 만들기 위한 '제1회 도서관시민학교' 개최

부천시지역작은도서관협의회는 7월 23일(월)과 24일(화) 양일간 복사골문화센터에서 '제1회 도서관시민학교'를 개최했다.

부천시지역의 도서관 관계자, 자원활동가, 동아리 회원, 사서,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책 읽는 도시 부천 만들기와 도서관친구에 대해 사례를 통해 도서관친구와 한 도시 한 책 읽기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출처: 부천타임즈 7월 23일제]

### ■ 프로그램

- 한 도시 한 책읽기 / 윤정옥(정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책 읽는 도시와 도서관친구  
/ 이원돈(부천시지역작은도서관협의회 회장)
- 광진구 도서관친구 사례 / 여희숙(광진도서관친구모임 회장)

##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맞춤형 점자·녹음도서 60종 4500권 제작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시각장애인의 독서환경 개선 및 독서 증진을 위해 맞춤형 점자도서와 녹음도서 60종 4500권을 8월 또는 10월에 제작·배포한다.

이번 점자·녹음도서 제작은 시각장애 아동들에게 어린 시절부터 꾸준히 독서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마련된 것으로 전문가·실사용자 등을 중심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제작 토의를 한 뒤, 독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통해 각 연령별 특징에 따라 통합·점자·녹음 등 특화된 제작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번에 만들어지는 도서는 많은 제작비로 인해 제작이 어려운 아동용 통합도서(일반도서에 투명점자 라벨을 부착한 도서)와 전자도서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고

신기술에 민감한 청소년들의 성향에 맞추어 mp3파일 형태로 제작한 녹음도서이다.

위원회가 제작하는 맞춤형 점자도서 및 녹음도서는 주요 공공도서관, 점자도서관, 맹학교, 복지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출처: 경남도민일보 7월 21일제]

## 한국전자책산업협회, 제2회 U-Library 활용 우수도서관 시상식 개최

한국전자책산업협회((구)한국전자책컨소시엄)는 정보통신부 후원으로 7월 20일(금) 출판문화회관 강당에서 제2회 U-Library 활용 우수도서관 시상식을 가졌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U-Library 저변확대와 도서관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전국 공공 및 대학 도서관을 대상으로 U-Library 활용 우수도서관을 선정했다.

선정된 도서관은 공공도서관 부문에서는 용인시립도서관이 대상을 차지했으며 우수상과 장려상에 8개 기관이 선정됐다. 대학도서관부에서는 대상은 해당도서관이 없었고 우수상에 건국대학교 상허기념도서관과 동아대학교도서관 2개관이 선정되었으며 장려상에는 20개 기관이 선정됐다.

## 국외소식

### 미국 2007 북 페스티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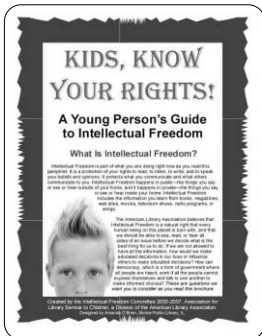
로라 부시 대통령 영부인이 주최하고 미국의회도서관이 후원하는 '2007 북 페스티벌(2007 National Book Festival)'이 9월 29일(토) 워싱턴 D.C.에서 열린다.



2001년부터 계속되어온 이 행사는 올해 약 70명의 유명한 저자, 삽화가 및 시인들이 모여 독자와 함께 책을 이야기 하는 시간을 가진다.

[출처 : [www.loc.gov/bookfest/](http://www.loc.gov/bookfest/)]

## ALSC, '아동을 위한 지적 자유' 가이드라인 발표



미국도서관협회 산하의 아동도서관서비스협회(The Association for Library Service to Children, 이하 ALSC)는 '아동의 지적 자유'를 알리기 위해 4페이지 소책자 "Kids, Know Your Rights! A

Young Person's Guide to Intellectual Freedom"을 간행했다.

ALSC는 이 책자를 통해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언어로 아동의 지적자유의 권리와 이를 지킬 수 있는 방법, 또 다른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 등에 대해 설명했다.

[출처 : [www.ala.org/ala/alsc/alscpubs/KidsKnowYourRights.pdf](http://www.ala.org/ala/alsc/alscpubs/KidsKnowYourRights.pdf)]

## ERIC, 마이크로피시 2만점 웹상에서 제공하는 프로젝트 진행

ERIC(Education Resources Information Center)은 1966년부터 1992년까지 연구문헌 34만점의 마이크로피시를 디지털화해 연구자들에게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운영 중이다.

이 프로젝트는 마이크로피시의 보존을 위한 전자 사본을 만들고 더 나아가 각 자료의 저작권 관련 내용을 확인해 데이터베이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작됐다.

2009년 3월 완료가 목표인 이 프로젝트는 우선 1988년부터 1992년까지의 마이크로피시자료 2만점을 디지털화해 웹에 공개했으며 완료 시점까지 순차적으로 자료를 공개할 계획이다.

[출처 : [www.eric.ed.gov/ERICWebPortal/resources/html/news/eric\\_news\\_48.html](http://www.eric.ed.gov/ERICWebPortal/resources/html/news/eric_news_48.html)]

## 미국, 학교도서관에 도서미디어교사를 배치하는 법안 제출

최근 미국에서는 학교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미디어교육과 학생·아동의 학습 달성도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학교도서관 도서미디어교사(school library media specialists)가 배치되어있는 학교는 그렇지 않은 학교와 비교해 학습 달성도가 높다는 분석 결과가 발표되었다. 그러나 학교도서관에 도서미디어교사가 배치되어있는 공립학교는 전체의 약 60%이다.

이에 따라 6월 26일(화) 미국 연방 의회에 「아이의 학습과 도서관에 대한 관심을 강화하는 법률안 (Strengthening Kids' Interest in Learning and Libraries Act ; SKILLS Act)」이 제출되었다.

이 법안은 2011년도를 목표로 각 공립학교에 도서 미디어교사를 배치하고 직무연수와 전문 능력개발, 채용 방식을 적용토록 하고있다. 또한 학교도서관의



자료,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학생에 대한 지원, 학습 흥미 유도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있다.

[출처 : [http://thomas.loc.gov/home/gpoxmlc110/h2864\\_jh.xml](http://thomas.loc.gov/home/gpoxmlc110/h2864_jh.xml)]

## 미국도서관협회 기관지 《American Libraries》 발간 100주년 맞아



미국도서관협회(ALA)가 발행하는 기관지 《American Libraries》가 발간 100주년을 맞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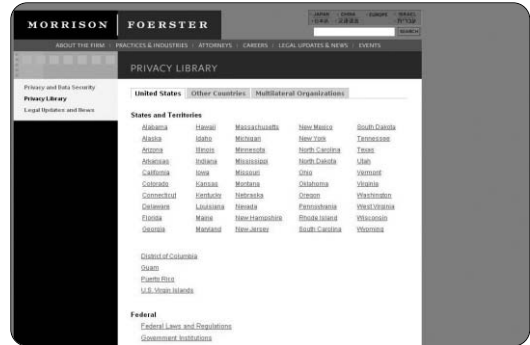
이를 기념해 특집으로 《American Libraries》의 100년을 되돌아보는 “The First 100 Years(최초의 100년)”를 공개했다.

특집에는 ALA이야기, 《American Libraries》가 걸어온 길과 중요 이슈 등을 소개했으며 MS사의 빌 게이츠 회장이나 여배우 마릴린몬로 등의 유명 인사가 표지모델로 등장한 화보 등을 수록했다.

[출처 : [www.ala.org/ala/online/resources/selectedarticles/0607\\_feature\\_timelin.pdf](http://www.ala.org/ala/online/resources/selectedarticles/0607_feature_timelin.pdf)]

## 미국, 세계 각국의 ‘개인 정보 보호’ 법률에 관한 링크집 “Privacy Library” 제공

미국의 모리슨·포에스타(Morrison&Foerster) 법률사무소는 미국 각주 및 세계 90개국 이상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가이드라인·보고서 등의 링



크를 모은 “Privacy Library”를 공개했다.

또한 스팸메일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정리해 제공하고 있다.

[출처 : [www.mofoprivacy.com](http://www.mofoprivacy.com)]

## 빌 & 멜린다 게이츠 재단, 2007년 배움의 기회제공상 수상기관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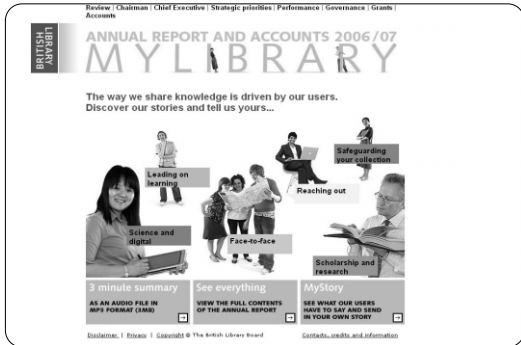
‘배움의 기회제공상(Access to Learning Award)’은 빌 게이츠 회장이 지난 2000년 설립한 빌 & 멜린다 게이츠 재단(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이 미국 이외 전 세계에서 공공의 자유로운 정보접근을 위해 혁신적인 정보기술 프로그램을 개발한 공공도서관과 관련기관에 수여하는 상이다.

2007년 수상기관으로는 호주(Australia) 노던준주(Northern Territory)의 중심도시인 다윈(Darwin)의 노던준주(테리토리)도서관(Northern Territory Library : NTL) 시스템이 선정되었다. NTL 시스템은 소외된 지역민들에게 도서관을 통해 인터넷 접속 등 정보의 자유로운 접근기회를 제공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편 2008년도 배움의 기회제공상 후보 서류접수가 시작됐는데 응모할 수 있는 기관은 미국을 제외한 세계 각국의 기관으로 접수 마감은 2007년 12월 31일이다.

[출처 : [www.gatesfoundation.org](http://www.gatesfoundation.org)]

## 영국국가도서관, Web 2.0 스타일의 연보 공개



영국국가도서관(BL)은 2006/2007년 연보를 Web 2.0 스타일로 공개했다.

이번 연보는 요약본을 3분간의 MP3형식의 음성 파일로 제공하고 동영상에 이용자가 직접 출연해 이용자평가를 소개한다.

또한 자신의 의견을 BL에 보내거나 다른이들에게 연보를 메일로 소개할 수 있는 기능을 첨부했다.

[출처 : [www.bl.uk/mylibrary](http://www.bl.uk/mylibrary)]

## 교황청도서관, 내부 보수공사를 위해 개관 550년만에 휴관

교황청도서관은 내부 보수공사를 위해 7월 17일(화) 휴관하여 2010년 9월경 재개관할 계획이다.

1450년대 초반 교황 니콜라스 5세때 지어진 도서관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서관 중 하나로 150만 권의 서적과 15만권의 진귀한 필사본 및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경인 『코덱스 바티카누스(Codex Vaticanus)』를 소장하고 있다. 이 도서관은 제1차 및 제2차 세계대전 중에도 문을 닫지 않았다.

이번 550년만에 도서관을 휴관한 것은 25년전에는 일부 건물들이 장서를 안전하게 보관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면서 내부 보수공사를 위해 결정되었다.

내부 보수공사를 통해 에어컨 및 집전 장치를 설치하고 화재시 비상 대피구들도 개선할 계획이다.

교황청도서관은 2010년 9월 재개관까지 복사본이나 마이크로필름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출처 : 연합뉴스 7월 19일자]

## 캐나다, 도서관·문맹퇴치를 위한 정보공유 사이트 오픈

캐나다도서관협회(Canadian Library Association)와 국가문해사무국(National Literacy Secretariat)은 협력하여 도서관과 문맹퇴치 능력 추진 기관의 정보공유 사이트 “Libraries and Literacy.ca”를 오픈했다.

이 사이트는 2006년 6월 개최된 ‘도서관과 문해에 관한 국가정상회의(A National Summit on Libraries and Literacy)’에서 논의된 주제인 ‘관계 기관 정보공유·협력 관계의 추진’을 계기로 만들어 졌다.

이 사이트를 통해 도서관이나 문해 교육에 관한 정보를 구할 수 있으며 타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출처 : [www.librariesandliteracy.ca/start.htm](http://www.librariesandliteracy.ca/start.htm)]

## 베네수엘라, 노새를 이용한 도서관 운영

베네수엘라 안데스 산맥 지역의 벽지에 노새를 이용해 책을 전달하는 ‘노새도서관(bibliomulas)’이 운영 중이다.

지역사회 밀착 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두고 있는 몸보이대학(Momboy University)이 시작한 노새를 이용한 이동도서관 운동은 험한 안데스 산맥에 위치하고 있는 3개 주의 하나인 트루히요(Trujillo)주 몸보이계곡에서 시작됐다.

이 도서관은 2마리의 노새에 책을 싣고 안데스의 험한 지역을 넘어 몇 개의 마을을 순회하면서 책과 접하기 어려운 벽지 지역의 주민과 아이들이 책을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몸보이대학은 이동도서관운동에 이어 노새에 무선인터넷 모뎀을 설치해 벽지주민들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출처 : [http://news.bbc.co.uk/1/hi/programmes/from\\_our\\_own\\_correspondent/6929404.stm](http://news.bbc.co.uk/1/hi/programmes/from_our_own_correspondent/6929404.stm)]

## 인도 정부, 도서관 개선 계획에 100억루피 지원 예정

인도는 10월부터 도서관 개선 계획인 '도서관·정보 서비스에 대한 국가적 사명(National Mission on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시행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인도는 100억루피(약 2392억원)를 지원해 국립도서관을 비롯한 도서관의 장서 구축, 도서관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계획하고 있다.

[출처 : [www.telegraphindia.com/1070730/asp/frontpage/story\\_8124168.asp](http://www.telegraphindia.com/1070730/asp/frontpage/story_8124168.asp)]

## 일본 니가타현, 지진에 의한 도서관 피해 복구 진행 중

일본 니가타현(新潟県)은 7월 16일(월) 일어난 대규모 지진으로 인해 현내에 도서관들이 큰 피해를 입어 지진발생 다음날부터 휴관에 들어갔다. 카시와자키시립도서관(柏崎市立図書館)은 전체 장서 27만권중

에 90% 이상이 서가에서 떨어졌으며 서가 자체가 휘어지거나 건물의 현관문이 뒤틀려 열리지 않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이후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의 복구 작업으로 자료실과 멀티미디어실 각 1개실을 개방해 8월 1일(수)부터 부분 운영하고 있다.

카리와무라촌립도서관(刈羽村立図書館)은 장서와 건물 손상등의 피해를 입었지만 모두 8월 첫주 재개관했다.

그러나 니가타공과대학부속도서관(新潟工科大学附属図書館)은 장서 5만권이 거의 모두 바닥에 떨어졌으며 건물뿐만 아니라 각종 멀티미디어 장비들도 손상되어 새학기가 시작되는 10월 전까지 임시 휴관해 복구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도서관의 지진 피해에 대한 다양한 복구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다.

각 도서관들은 웹사이트 등을 통해 휴관정보를 안내해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 했으며 니가타현립도서관(新潟県立図書館)은 현내 각 도서관의 피해규모 등을 조사해 제공했다. 니가타현교육청과 니가타현립문서관(新潟県立文書館) 등은 각 지자체에 재해를 입은 문서 취급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 안내문은 재해를 입은 문서들은 복구 가능성이 많으므로 모두 폐기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내용이며 문서의 복구 방법도 안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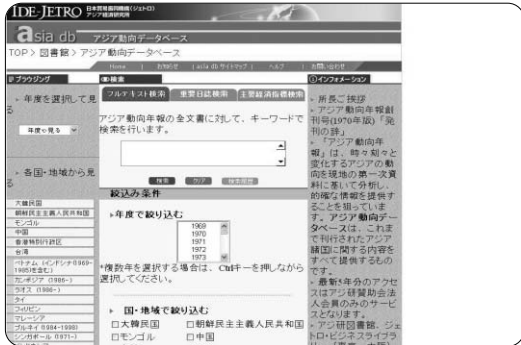
[출처 : [www.pref-lib.niigata.niigata.jp](http://www.pref-lib.niigata.niigata.jp)]

## 일본 아시아경제연구소 도서관, 아시아 동향 데이터베이스 온라인 공개

일본무역진흥회(JETRO) 아시아경제연구소 도서관은 홈페이지를 통해 '아시아 동향 데이터베이스'를 공개했다.

이 자료는 아시아경제연구소가 1970년부터 아시아 각국의 정치·경제적 동향을 분석하여 간행한 『아시아 동향 연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한 것이다.

## 신설도서관



자료를 볼 수 있는 범위는 법인회원은 최신 5년간의 자료 전부를 볼 수 있으며 일반이용자는 최근 5년 이전의 데이터(분석리포트, 중요 일지)를 원문으로 검색·열람할 수 있다. 또한 아시아경제연구소 도서관이 독자적으로 작성한 주요 경제지표도 다운로드 가능하다. [출처 : <http://d-arch.ide.go.jp/asiadb>]

### 일본 봉사단체, 2007 여름 ‘아시아 어린이와의 만남’ 연수 개최

아시아지역 국가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공공도서관과의 네트워크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봉사단체인 일본 ‘Shanti Volunteer Association(SVA)’은 8월 20일(월)부터 26일(일)까지 1주일간 라오스를 방문해 ‘아시아 어린이와의 만남’ 연수를 개최했다.

이 단체는 2005년부터 라오스에 이동도서관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지원하고 있는 이동도서관은 라오스의 초·중학생들뿐만 아니라 재활센터, 노인요양원, 장애인직업학교 학생들까지 포함한다. 올해의 연수 중에는 현지의 도서관활동을 살펴보고 학교를 견학하는 한편 라오스 어린이와 사서들과의 교류의 시간도 가졌다.

[출처 : [www.jca.apc.org/sva/topic/cbsehon2007.html](http://www.jca.apc.org/sva/topic/cbsehon2007.html)]

### 오산햇살마루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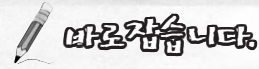
- 개관 : 2007. 7. 9.(월)
- 면적 : 부지 1,508.9㎡, 연면적 999.02㎡
- 관장 : 이규우
- 주소 : (447-805) 경기도 오산시 원동 중앙대로 119 (원동 404-8번지)
- 전화 : 031-370-6160
- 팩스 : 031-370-6173
- 홈페이지 : [www.osanlibrray.go.kr](http://www.osanlibrray.go.kr)
- 휴관일 : 매월 첫째·셋째 월요일
- 특징 : 지하층, 지상4층 규모, 일반도서 7,245권, 유아·아동도서 25,417권, 정기간행물 32종, 총 32,662권의 장서를 갖춘, 1층에는 주차장이, 2층에는 새싹책터·병아리책터·꿈나라동지·사무실, 3층에는 푸른정보책터·디지털정보센터·이야기방·도란도란가족방·지킴이방이, 4층에는 희망소극장·전시홀·행복배움터·어울림터가, 옥상에는 하늘정원이 있음.

## 향후 도서관계 행사

### 학술정보공동활용협의회, 학술 워크숍 개최

- 일시 : 9월 13일(목)~14일(금)
- 장소 : 덕산 스파캐슬
- 주체 : 학술정보공동활용협의회
- 주제 : Future Library
- 문의 : 광주과학기술원 도서관정보팀 조병관

☎ 062-970-8087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책 읽는 서울” 행사를 서울문화재단과 함께 주관합니다. 《도서관문화》 7월호 18쪽 “서울문화재단, 2007 서울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사서대상 문화워크숍 개최” 기사와 8월호 “서울문화재단, 7월부터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프로그램 진행” 기사에서 이 행사는 서울문화재단 뿐 아니라 서울특별시교육청도 함께 주관하는 것이나 그러한 사실이 누락되었습니다. 현재 서울시 소재 도서관들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프로그램은 서울문화재단과 서울특별시교육청이 함께 진행하는 것임을 밝힙니다.

## 제44회 전국도서관대회

- 일자 : 2007년 10월 10일(수) - 10월 12일(금)(3일간)
- 장소 :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JEJU)
- 주제 : 오늘보다 더 거대한 세계 속의 도서관
- 참가신청 안내
  - 1차 마감 : 8월 16일(목) ~ 8월 31일(금)
  - 2차 마감 : 9월 1일(토) ~ 9월 28일(금)
  - 현장 등록 : 9월 29일(토) ~ 대회 당일
- 문의
  - 프로그램, 전시회, 참가신청 : 한국도서관협회(전화 02-535-4868, 팩스 0303-0535-5616, www.kla.kr)
  - 항공, 여행상품 : 제주라이브투어(전화 064-758-9771~3, 팩스 064-758-9774, www.livejeju.co.kr)

♣ 회원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